# 印 불교단체 "부다가야를 불교도에게"

**부다가야 사원 관리 불균형 해소 촉구**
**現 힌두교 성직자 관리 대한 항의 나서**
**"성지 대표에 힌도교인 대표성 부적절"**
**사원 앞 거리서 평화집회…펀딩 모금도**

박영빈 객원기자



부다가야에서 평화집회를 가진 시킴 불교도들. 사진출처=인디아투데이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부다가야. 부다가야의 보리수와 대탑이 있는 마하보디 사원은 '부다가야 사원 관리위원회(BTMC)'의 운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불균형한 위원회의 구성으로 불교신자들의 꾸준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인도의 '인디아 투데이'는 전인도불교협회의 시킴 지부가 부다가야에서 BTMC의 불균형 해소를 촉구하고, 부다가야를 불교도들에게 돌려달라는 평화집회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BTMC는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1949년 제정된 법률에 의해 9인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장은 지방 치안판사가 되어야 하며 힌두교도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9인의 위원 중 불교계에 배석된 자리는 단 4석이다. 이 법률은 제정 당시부터 불교계로부터 불교의 성지를 대표하는 위원회로는 대표성이 부적절하다는 항의를 받아왔다.

실제 불교도의 관리가 있기 전까지 힌두사원으로 운영되었던 마하보디 사원은 현재도 대탑의 본존불 정면에 시바신의 상징인 링가가 봉안됐던 좌대가 남아있다. 또한 사원 한쪽에는 시바신을 모시는 사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타라보살을 봉안한 법당은 힌두교 성직자가 관리하고 있다.

전인도불교협회의 시킴 지부의 지부장 옹디 핀초 부티아는 "부처님의 성도성지를 관리하는 BTMC의 구성은 오랫동안 지나친 불균형이 이어져왔다. 마하보디 사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공평, 공정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큰 불의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부티아 지부장은 집회에서 "BTMC의 부적합한 대표성을 인도 정부는 인지해야한다. 이 집회는 그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내 불교 공동체의 목소리가 모인 것"이라고 연설했다. 또한 시킴에서 부다가야까지 이동하는데 사용된 경비와 집회에 사용된 모든 경비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했음을 밝히며 "이 펀딩의 성공은 우리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마하보디사원 앞의 거리에서 진행된 행진과 집회에는 시킴지부의 각 사찰과 불교단체를 대표하는 40명의 대표단과 다른 불자들, 부다가야 현지의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교기와 아쇼카 대왕의 초상화 등을 들고 마하보디 사원까지 행진했으며, 집회에 모인 이들은 BTMC의 의석에 더 많은 불교도의 자리를 추가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살아있는 나무에 조성된 11면 관음상

**수령 450년된 은행나무 안에**
**1828년 조성…마을 안녕 기원**


살아있는 은행나무 안에 조성된 11면 관음상. 사진출처=아사히신문

수령 450년의 살아있는 은행나무에 190년 전의 스님이 조성한 관음상이 화제다. 지난 11월 26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후쿠이(福井)현 타이오지(諦應寺) 경내에 있는 '은행관음상'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각지에는 살아있는 나무에 불상을 조성하는 신앙이 있다. 흔히 영험담이 전하는 나무나, 민간신앙과 결합된 형태로 입목불(立木佛), 혹은 생목불(生木佛)이라고 불린다. 후쿠이현 와카사 역사박물관의 카와무라 켄지 학예원은 "자연목 그대로에 불상을 조성한 예시는 다양한 사료에서 볼 수 있지만, 나무의 성장에 따라 불상이 훼손되거나 반대로 불상을 조각한 부분이 부패되면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타이오지처럼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전했다.

타이오지 산문 좌측에 서있는 은행관음상은 높이 약 30m, 둘레 4.4m, 수령 약 450년의 은행나무 줄기에 조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모습으로 조성되는 관음상에 비해 은행관음상은 단단하고 강한 눈매를 가진 남성적인 모습으로 조성된 것도 특징이다. 마을의 향토지에 의하면 이 불상은 약 190년 전인 1828년의 작이라고 한다. 조성한 불모는 사찰과 마을의 구전에 따르면 당시 타이오지의 주지였던 케이류(惠隆) 스님으로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며 직접 한 자루의 칼만으로 조성했다고 한다.

타이오지의 주지 타카다 토쿠오 스님은 "불상이 조성된 나무는 절을 방문한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고, 또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 있다. 옛 스님들의 기원이 강하게 느껴지는 불상인 만큼 앞으로도 건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도 잎과 열매를 많이 내는 나무이지만 고령인 까닭에 사찰과 신도들이 오랜 세월에 거쳐 나무에 대한 방제작업과 불상의 수리를 거쳐 왔다. 타이오지 측은 올해 11월에 수목의(樹木醫)인 이케가미 나루시 씨에게 의뢰하여 수복작업을 진행했다. 관음상의 열화된 표면을 청소하고, 목재용 오일의 도포, 균열이나 공동이 생긴 부분엔 발포 우레탄 수지를 사용해 구멍을 막고 더 이상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케가미 씨는 "현재까지 나무 자체의 생명력은 매우 강하며,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진단했다.

타이오지 측은 최근 SNS등을 통해 불상이 알려지면서 타지역에서도 불상을 친견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나고야에서 불상을 십수 년 만에 다시 친견하러 왔다는 한 노부부는 "자비로우면서도 굳센 상호를 보면서 보살님께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돌봐주셨다는 생명력이 느껴진다"며 두 손을 모았다. 박영빈 객원기자

# 美, 티베트 불교 사원 확장 개원

**1999년 개원…티베트 불교 포교 힘써**


확장 개원한 가댄 삼둡링 사원 전경. 사진출처=가댄 삼둡링 사원

미 오하이오주 콜레인 타운쉽에 티베트 불교 사원 '가댄 삼둡링'이 확장 개원했다. 개원식에는 제3대 캅제 티쟝 촉툴 린포체가 참석해 축원했다. 지난 11월 21일 미국 오하이오 지역 방송사 'WVXU'는 티베트 불교사원의 확장 개원 소식을 전했다.

가댄 삼둡링 사원 확장 개원식은 22일 오전 10시 대중 법회로 봉행했다. 캅제 티쟝 촉툴 린포체의 축원과 티베트, 스리랑카, 태국 불교 전통 염불, 몽골 흐미(몽골 전통 배음 창법) 가수의 법음 봉송이 있었다. 개원식이 끝나고 티베트 전통 음식으로 점심 공양을 제공했다.

가댄 삼둡링 사원의 잠양 라마는 "1999년 개원한 가댄 삼둡링 사원은 불교 연구 및 수업, 명사 수행 등 티베트 불교문화를 위한 공동체 센터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나날이 불교에 귀의하는 불자가 증가해 티베트 불교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불자들의 도움을 받아 전법활동 공간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사원을 히말라야, 티베트 산 등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만약 네팔, 인도 또는 티베트를 여행할 수 없거나 티베트 불교를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사원에 찾아오면 된다. 생생한 현지 감성 그대로 조성해 해외여행 대리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댄 삼둡링 사원은 현대적 가치인 친환경과 지속 가능한 재료를 활용한 티베트 전통 건축 디자인으로 지었다. 법당 외에도 상주하는 승려들과 방문자를 위한 요사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건설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泰, 제7회 불교-기독교 콜로키움 개최

**7가지 실천 발표 및 연대 강조**


태국 승가 최고 평의회의 프라 브라마푼딧 스님과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장관 미겔 양헬 아유소 기소 추기경. 사진출처=카톨릭리뷰

지난 11월 2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7회 불교-기독교 콜로키움 개최 소식을 전했다. 마하출라롱컨라자위달라야 불교 대학교, 교황청 종교간대화부, 태국 가톨릭 주교회의가 개최한 콜로키움은 '지구와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비와 아가페'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아시아 12개국의 불교, 기독교 신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와 기독교 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역경에 직면한 세상에 희망과 자비를 심어주기 위한 종교간 협력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리고 각 지역과 종교적 가르침에 뿌리를 둔 7가지 실천을 발표하면서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콜로키움에서 합의한 7가지 실천은 기도, 교육, 대화, 협력, 고통 인정, 공감 함양, 혁신 촉진이다.

태국 승가 최고 평의회의 프라 브라마푼딧 스님은 "아무도 혼자서 구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오직 함께 구할 수 있다. 우리는 포용적인 세상을 육성하기 위해 시민 사회,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 언론 관계자들, 정부들, 국제기구들, 학계와 과학계, 그리고 다른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 위기, 빈곤, 분쟁으로 인한 상처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치유하는데 자비와 아가페가 필요하다"며 상호 의존적인 인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자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사도 대리인 올리비에 슈미트하이슬러 주교는 "대화 없이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대화는 치유와 영감을 제공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대화는 정의와 진실을 찾고 지구를 보호하는 다양한 종교 집단을 동원할 수 있다. 우리는 타인과 환경의 고통에 대해 공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결정에 자비와 아가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회적 격차로부터 자유롭고 조화와 상호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된 세계를 구상하며 공동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콜로키움 참석자들은 의사결정에서 공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포괄성과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정치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에서 자비의 연대를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다면적인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근거로서 자비와 아가페를 강조하며 종교간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와 꽁트의 만남!! 꽁트를 통해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불교 지식 꽁트

화제의 신간




글 윤창화 | 204쪽 | 9,500원

무아

혼이 나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 — 나(我)란 없다는 뜻.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오온은 무아), 제법무아(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 윤창화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저서로는 《왕초보, 선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선불교》, 《불교 사자성어》 등이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 성어

사자성어의 의미와 우리의 삶!
사자성어 60개를 두 달 만에 익힐 수 있다!




글 윤창화 | 224쪽 | 13,800원

몽중설몽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무명장야
-어리석음의 기나긴 밤
팔풍부동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비무적
-자비 앞에는 원수가 없다
이고득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다
실유불성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심시불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다